

문제부안

문화재보호·경제성 '일등'

특별기고 문민정부의 문화의식

경주고속철 백지화 추진위 노선비교 포럼



○ 지난 6일 열린 '문제부안-건교부안 비교'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문화재보호와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부안이 우월하며 문제부안으로 노선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고속철도경주동백지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가 주최한 '건교부안과 문제부안의 비교'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복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장흥식교수(동국대 불교미술사학과) 조명래교수(단국대 지역개발학과)는 "부득이 경주를 통과한다면 문화재보존을 통한 경주개발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경주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도시로 가꾸는 방안은 문제부안 제시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 건교부안과 문제부안의 비교(이선복 교수)=고도 경주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도시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생각해 나온 아이디어가 문제부안의 노선-화천노선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부안의 장점은 지형적으로 남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경주유적이 모두 문화도시이지만 핵심지역인 왕경과 남산이 있는 이른바 3천과 5악이 둘러싸고 있는 일대는 살아남는 것이다. 보존해야 할 핵심지구는 살리고 문화재보호로 인해 발생했던 경주시민의 불만을 건천에서 해소토록 하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를 꾀하는 안이다.

건교부 도심통과안 工期길고 비용도 증가 노선외곽화 신도시 개발 이익 시민에 환원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현상강노선은 서울에서 내려오다 동국대 지점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8.4Km를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망성리에서 지상으로 나와 이조리에 역사를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건교부는 남산 보호를 위해 역세권 개발은 하지 않고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의 환승역으로만 설치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루 이용객이 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조리역 주변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속철도 건설로 미칠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단견이다. 건교부가 이조리역 주변을 개발하지 않아도 경주에서 개발할 것이다. 건교부는 또 현상강노선이 건천노선보

다 공사기간이 짧으므로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다고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이도 타당하지 않다. 건교부 노선의 지상화구간이 문제부노선보다 10km가량 길다. 건교부노선은 대규모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주의 핵심지역을 지나가게 된다. 발굴인력을 모두 동원해도 건교부안이 문제부안보다 발굴기간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역사(驛舍) 개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건천지역에 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천노선은 가능한 서쪽지역을 활용해야 하며 △기존의 취락지구를 재개발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또 △역사 지역은 문화재보존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좋은 것이다 △신·구도시 순환교통망으로 경주를 통합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 이익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온 시민들과 왕경지구 복원을 위해 환급해야 한다. 또 도심은 80년대 서울 테헤란로 개발처럼 건물의 높이나 형태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구상세(詳細)개발'에 따라 복원하며, 경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신도시개발은 경주와 연고가 있는 민간기업 등이 투자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정성운 기자

가장 행복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정부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다. 정부는 나라 일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고 이를 전적으로 통괄하는 중추적 조직이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제도의 책임자들이지만 국회와 국민앞에서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하는 응분의 의무를 갖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권력구조 내부의 매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당하고 부정한 정치작용에 인하여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상실하고 굴욕감을 체험해야만 했던 쓰라린 역사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 경주 나는 한민족의 문화적 전통, 특히 그 정신적 유산에 대해 탐구해 온 학자로서 신라문화의 위대성을 세계민방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한국민으로서의 최대의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아 왔다. 그 찬란한 신라문화의 요람이 바로 경주이다. 그 고도 경주가 지금은 우리 한민족의 마음의 고향이기에만 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문화인·지식인이 높이 평가하는 세계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이기영 (고속철경주동백지화 추진위원장·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그러나 나는 이번 우리 정부의 건설교통부가 고속철도를 경주 도심으로 통과하도록 설계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 나라 학계 문화계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하게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고 다시한번 이 나라에 사는 서울과 서울을 고향 같게 여기는 이 글을 쓴다. 나는 건교부가 자기네 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이라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양보할 용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첫째 이유인, 지금까지 설계와 조사 등에 소요된 경비가 엄청난데 이제 노선을 바꾼다면 다시 소요될 비용이 공기의 연장에 따라 더욱 증가된다는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왜 애초 그런 잘못된 계획을 모든 국민들 특히 이 나라 학계 문화계 종교계와 광범한 공개토론회를 은밀하게 진행시켜 왔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건교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문화재훼손이 안 말도 안된다는 어투인데, 그런 사고방식엔 문제가 있다. 개개의 문화재를 파괴하지 않고 발굴해서 박물관에 보존만 하면 된다는 논리에 종래한 착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경주는 그 지역 전체가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그 경관을 파괴

민족혼 무시해도 좋은가

이미 경주는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일제가 사천왕사의 경내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부설한 것은 식민통치자들의 만행이라고 치자. 그런데 고도 경주에 경마장건설을 확정하고 건설중이라는 사실도 빛나는 우리 문화전통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고속철도의 경주역 사(驛舍)를 남산 코앞에 세우고 9만명의 인구가 매일 그곳을 출입하고 포함 울산으로 가는 연계 자동차도로를 남산 주위로 통과하게 한다면, 그랜드 호텔, 돈간을 아는 사람들의 편의는 제공될지 모르지만 고도 경주는 죽는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의 정신공포를 격정하는 힘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아량을 베풀어 주는 믿음직한 사람이 나라 정치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대회주제·공동선언문 합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 2차 예비회의

지난 8일,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2차예비회의가 공동선언문과 대회주제 등의 일정을 최종합의하고 막을내렸다. 자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정치,문화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삼국이 본대회에 앞서 일정을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속에 성과를 올려 이번 모임은 더욱 뜻깊은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1차회의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었으나 중국측이 문구를 짚어가며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제시해 난항을 겪었다. 중국측은 "21세기를 주도할 한중일불교의 역할"이라는 본대회 주제에 대해 "한 종교가 21세기를 주도하는 것은 타종교나 정치적으로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 "21세기에 있어서의 한·중·일 불교의 사명"으로 바꾸었다. 중국측은 또한 공동선언문 초안에서도 "동북아 가

최근 조계종과 선학원이 참여한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4월 29일 동대구 그림에서 전국수좌회 스님들이 종단과 선학원 양측의 입장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국수좌회가 선학원문제해결의 새로운 중재원으로 떠올랐다. 선학원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리에서 진해스님은 "조계종 선학원대책특위가 요구하고 있는 △명칭변경 △정관 목적에

선학원 제적원 제출 그 이후

"전국수좌회 중재 나섰다"

정관개정 요구등 갈등요인 논의 조스님들은 "종단과 선학원의 갈등이 분종까지 가도록 광망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선학원문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2일 제주 남곡선원 개원식에 앞서 전국수좌회 스님들이 선학원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수좌회는 전국 선방수좌들이 사안에 따라 비정치적으로 모이는 모임으로 이번 선학원문제 해결을 위해 건원전에 나서기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합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종류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처
1. 시작예행 불지 기금 마련 일일집회	4월 21일 오전 9시	남문서시장 선학원	대방행인불지회
2. 상인동 기스복백 회생과 추모제	4월 28일 오전 10시	상인동 영남불교 및 동방정가일 종파장 및미리 주사경-기미회	대구광역시사원주지연회
3. 영인불자 갖바위 등반대회	4월 28일 오전 11시		대방행인불지회
4.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정돕기	5월 12일 5월 13일 5월 24일 5월 22일 오후 5시	각 가정 사태결연 독거노인 및 청소년가정집 (11곳) 수성구정 화성 일교동	권태종 대성사 자비회전회 자비봉사단, 경주사/봉곡위사회부 주관 봉곡의 사회부
5. 양로원 후원방문법회	5월 15일 오후 2시 5월 8일 오전 11시	무요급식소 자비회집 봉곡정교전지(해탈사관 및 장소)	무요급식소 법행사 종교단체 안일사 봉곡정교전지
6. 경로잔치	5월 11일 5월 16일 5월 18일		대구자선복지회/신서동/신당복지관/봉곡의 사회부/해탈 선학원/권태종 대성사
7. 저서인 41만 연속 잔치 헌타당	5월 17일 오전 12시	신서복지관/신서주공	신서복지관/신서주공
8. 소년헌법소 위요방문	5월 20일 오후 2시 5월 20일	대구소년 감벌소, 대구 소년원	대구소년 감벌소, 대구 소년원
9. 대구소년원 봉축기념법회	5월 21일 오후 2-4시	소년원 대강당	봉곡종교지도위원회
10. 대청양로원 사할인 귀국도로 호포법회	5월 22일 오전 11시	동화사/봉곡사 관공	조계종 9교본사 동화사
11. 고승선사화현 가족공동체유대회	5월 11일, 5월 12일	고승선사화현, 불연초등학교	영남불교대학(현안간) 영남불교대학/남구정 권운사 봉곡대구지부/바운근부지 후원 성수년문서교회/여언이지도교사협회
12. 봉곡기법 초/중/고 유부회-그리미 대회	5월 12일 오전 10시30분	관공산 동화사 일대	관공산 동화사 일대
13. 봉곡기법	5월 13일 오후 7시	문화체육관광체육관	문화체육관광체육관
14. 고대 로고주관 선로	5월 17일, 21일	각 대학 컨퍼런스	권태종 대성사/지법 국학단 대학불교대학/대림대/대림대 조계종대구광역시신도회
15. 가족친목기회	5월 20일 오후 4시	교래예식장(본신)	조계종대구광역시신도회
16. 대불전 헌타당	5월 21일 오후 7시	동아쇼핑몰 4층 이드류	대학불교대학/대림대/대림대 위교영기법계통동 대구군비모임
17. 범종소년 초청 '읽고 할기유계' 행사	5월 22일 오후 2시	서민회관 대공연장	
18. 연등축제	5월 24일 7-9시	무룡공원/7호중앙/백현당 일대	부처님오신날대구봉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처
1. 봉축일 원동식	5월 11일 18시30분 19시30분	1. 시청앞 2. 대구역화강 일	대구봉축위원회
2. 군/민합동수계법회	5월 19일 10시 30분	2군 무일사	군불자/군인가족/청소년불자
3. 나라와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불타의 밤"	5월 21일 오후 6시	프린트호텔 대연회장	대원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4. 경안과 남북통일을 위한 기원대법회	5월 22일 오후 6시30분	2군 무일사 관공당	2군본사본 가사관 집행회
5. 봉곡타종법회	5월 24일	각 사찰 및 선학원 주지, 각 선학단체장	각 사찰 주지, 각 선학단체장
6. 봉곡대법회	5월 21일 오후 6시	신선관체 별도봉행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
7. 봉곡법요식	5월 21일 오전 10시	부유공원/계도법회/내정	각 사찰주지/계도법회/내정
8. 중립학교 행사	5월 21일	봉곡기법	한국교원총연합회/한국교원총연합회
9. 교도소 방문법회	5월 21일	봉곡기법	한국교원총연합회/한국교원총연합회
10. 군부대 법회	5월 21일	해당 군법당	*2군 무일사 *50사단 법원사 *K2상무일송사 *5군주둔사령부 *국군통합병원/일당군법당
11. 경찰서 법요식	5월 21일	각 경찰서	경순단/경찰청 법요식
12. 청소년가장들/양로원 방문/소외계층 방문	해당시일	해당시일	사찰/각 선학단체

부처님 오신날 대구광역시 봉축위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김 무 공**